

29과 정탐꾼들의 보고

27과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본문말씀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입니다

학습목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순종임을 알게한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한다라는 학습목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상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3절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할찌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저서 어둑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확실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주셨으며 또한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실 것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실 것을 약속해주시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땅 애굽에서 400여년간 종살이를 하며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 삼십년이라 사백 삼십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땅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중 하나입니다

어찌 성인 남자 장정만 60만명 그리고 어린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약 200여 만명정도나 되는 그 큰 수가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약속의 성취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몸소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가야할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혹 그들 마음가운데 더 좋은 땅을 사모했다든지 애굽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땅에서 나와서 약 2년여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주셨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며 또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며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친히 목도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 지파의 대표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탐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게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이었을까

또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이었는가 우리는 그들의 삶을 한 번 말씀을 통해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

어서 정탐을 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들의 삶을 돌아보았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정탐을 보내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21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얻으라고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것을 우리에게 회보케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회복케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목표가 가나안 땅임에 대해서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마땅히 바로 올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지체되는 그런 모습은 순종이 아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있던 롯을 불 가운데서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소돔에 거할 때 그를 인도하고자 하셨음에도 롯은 지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마음의 생각을 의지했던 그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는 것처럼 생각하며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항상 의지하며 그것을 더 신뢰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동안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인양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그들을 인도하여 갈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주셨고 또한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 마시우게 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또 정탐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눈을 더 의지하며 그들의 마음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선히 여겼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자체를 선하게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주었다 그들이 조르고 요구함에 따라서 그냥 방치해 두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했을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뜻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러하도록 허락해주십니다.

시편 106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06편 13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미구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찌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13절에 보면 [저희가 미구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행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능력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을 선정하였습니다

12지파의 각 대표 1명씩 그래서 12명의 정탐을 선정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족장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0여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보면서 탐지하고 정탐하는 일은 나이많은 족장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자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명씩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18절 말씀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 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니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그리고 그곳의 실과를 가져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열 두명의 정탐은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형편은 이러했습니다

22절 23절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칠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야낙 자손 아히만과 세새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가져오는데 두 명의 장정이 그 한 가지를 매어올 정도로 아주 실과가 풍성한 곳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열 두명의 정탐은 두 가지의 목소리를 냅니다

열 명의 정탐과 두 명의 정탐의 말이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열 명의 정탐은 이와같이 이야기 합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열 명의 정탐은 비록 땅은 좋을찌라도 그 땅을 악평합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땅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강한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거기에 살고 있는 자들의 신장은 장대합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 같이 작게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탐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땅을 충분히 취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 땅을 취하러 올라갈 것을 이야기 합니다

또 14장 9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또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도 그들이 느꼈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모든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또한 그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할 때 가나안 땅은 그들의 능력으로 취할 수 없는 땅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물도 어떠한 거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전혀 다른 크기의 사물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근법이라고 하죠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보이며 멀리에는 보이는 것은 작게 보이는 것이 이치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며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며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있게 느끼며 이 세상의 환경과 사물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작게 보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열 명의 정탐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멀리 떨어져있는 것처럼 여겨졌고 그리고 그들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는 참으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정탐의 일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우리는 더욱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써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 명의 정탐과 두 명의 정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었습니까?

그들은 열 명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수를 기뻐하며 또한 그들의 경험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을 앞서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며 돌아가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10절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

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마음으로 배신하며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른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과 얼마 전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모세의 입장이 되었으면 어떠할까 생각해봅니다

참으로 백성들이 원망스럽고 그들의 모습이 밉고 싫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참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장의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열 명의 정탐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십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애굽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십세 이하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그러한 마음이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참으로 모든 삶 가운데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그런 선택과 같은 상황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신 목표와 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눈과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의 본 되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